

## 성령 충만하면 교리가 확실하다-거짓 구원론 타파

성경말씀: 딤후2:14-18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위로자, 진리의 영(요14:16-17)

그러므로 성령 충만으로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세상에는 옳은 것(진리)과 옳지 않은 것(허위/오류)이 공존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심지어 교회에도 진리와 오류가 존재한다. 영을 분별하라(요일4:1).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쉬운 일이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핵심: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한다. 내 체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단

### 교리

교회는 교리에 의해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된다.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교리가 틀리면 이단이 된다. 이단은 아니라도 헛고생

A. 교리: 마귀가 의미를 변개시킨 단어 중 하나

1. 교리는 분열을 가져온다. 2. 재미없고 실제로 쓸모가 없다. 3. 성령님의 열매만 있으면 된다.

B. 교리(doctrine): 단수 51회(구6, 신45), 복수 5회(신약에만), 총 56회

1. 교리의 정의: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것

2. 교리는 빛과 어둠, 참과 거짓, 생명과 사망을 나눈다. 교리 없이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3. 성령님의 열매는 뿌리가 있어야 나온다. 그 뿌리는 진리를 아는 것 즉 교리이다.

C. 교리의 중요성

1. 독극물을 막아 준다(딤후4:1, 13-16; 딤후4:1-4). 2. 안정감과 평안을 준다(엡4:14). 3.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다. 4. 성도를 세워 준다(딤후2:15), 5. 성도 무장(딤후3:13-17)

D. 성경이 주어진 목적: 딤후3:16-17

E. 잘못된 교리는 이단을 양산한다.

1.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람들의 전통(마15:9; 막7:7). (카톨릭 등), 2. 마귀들의 교리들(딤후4:1)  
3.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히13:9, 8절과 대비), 4. 전전한 교리: 4회(딤후1:10; 딤후4:3; 딤후1:9; 2:1), 5. 목회 서신(딤후, 딤후, 디도서)의 교리: 17회(단수 16회, 복수 1회)

F. 성도들을 위한 기본 교리

1. 성경, 2. 삼위일체 하나님, 3. 아버지 하나님, 4. 그리스도, 5. 성령님, 6. 사탄과 천사들  
7. 사람, 8. 죄, 9. 구원, 10. 교회, 11. 예언(종말론)

### 교회 안의 교리 문제

바울은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헛된 말장난이라고 한다(16).

이런 말장난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나아간다.

그 결과 궤양이 위를 파먹듯이 성도들을 파먹는다. 신천지, 증인회 등 이런 자들은 이름까지 거명함(17).

그 당시의 말장난(18),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 결과, 성도들의 믿음을 뒤집어엎는다.

### 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

1.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15).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교회와 이스라엘 등  
2. 문맥과 수신자, 3. 국어의 중요성

### 현 시대 교리의 왜곡

여러 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교리

엡2:8-9, 예수님의 십자가 단번 속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른 방법, 기초 없다.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성도들 유혹하여 쓰러뜨리는 교리, '믿음+행위', 천주교 교리, 피터 럭크맨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갈1:6; 8-9), 다른 복음의 핵심: '믿음+행위'

바울의 결론(2:16), 오직 믿음으로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등 더하기

1. 지난주 유튜브, 벤자민 오 목사,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되고 천국에서의 상급은 구원 이후 행위에 의해서 된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갔다. 이것은 성경 신자들의 공통된 믿음  
그의 말장난(16)

야고보서를 들고 나온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약2:26).

그러므로 바울이 '믿음만으로'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실제로 '살아 있는 행위가 있는 믿음'이다.  
그의 말장난 종합, 구원은 믿음만으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가 있는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 구원은 '믿음+행위', 아주 교묘한 행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데 넘어가지 않는다. 딤후2:15,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

야고보서의 행위는 무슨 행위인가? 구원에 필요한 행위인가? 구원 이후 성화 과정의 행위인가?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책, 구원받으라고 구원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 유튜브 “야고보서 오해 풀기\_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  
그러므로 야고보서를 가져다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접목하면 '믿음+행위'의 이단 교리가 나온다.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 말장난이다.

2. 믿음도 행위이다.

어떤 분들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동의, 그런데 믿는 것도 행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구원받을 자들을 먼저 살려 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즉 다시 태어 나는 것(중생)이 구원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전적으로 중생시키면 사람이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요3).

요3:15, 롬10:9-10, 13, 믿고 부르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행위가 아니다.  
롬4:1-5를 맑은 정신으로 천천히 읽어 보자.

2절: 행위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4-5절 설명

3. 구원 이후에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다. 끝까지 버텨야 구원을 받는다.

즉 구원은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루어야 할 과정이다.

좋은 의도: 싸구려 복음, 4영리 영접 기도,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짜 구원이다.

성경은 구원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비유(요3:3-5), 태어난 이후에 자란다. 평생 태에 있지  
않다. 태어나면 곧바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다. 구원

어머니 배에서 나온 뒤 우유 먹고 밥 먹고 자란다. 성도도 마찬가지(벧전2:2)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영에 속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전3:1-3).

음행, 주의 만찬 경홀히 하다가 죽고 병들(11:30),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대로 믿어야 한다. 구원받았어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구원은 받는다(고  
전5:5). 구원 받을 때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힘으로, 구원 이후 구원 유지도 오직 주님의 힘으로  
된다.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어 있다(엡4:30), 히7:25

구원 이후 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겨우 구원만 받는 자들도 있다(고전3:14-15).

### 결론

속이는 자들이 많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 유명하다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교리에 달려 있다(특히 구원에 관한 교리).

성령 충만하여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며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여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목사가 가장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행위 No!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구원 유지도 주님의 힘으로